

취업 후기

한성대학교 정보시스템공학과 14학번 임지환

Jhim147605@gmail.com

후기를 작성하기에 앞서 정보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특정 회사에 대한 전형, 절차보다는 시간 순으로 저의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한 간략한 후기를 적습니다.

저는 학부 생활이 곧 취업 준비 과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 과정에서 수업, 연구실 활동, BoB 활동 등을 수행하며, 매 과정에 충실히 임하여 실력 (발표, 논리, 토론, 직무 등)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교수님, 선배, 동기의 도움으로 투자 시간 대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면접에 있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업 준비에서 가장 어렵고 준비하기 힘든 부분이 면접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2, 3학년 때부터 실력과 스펙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기가 있어야 설득과 설명에 있어서 믿음이 가고, 유리합니다. 최근 취업 동향이 학교, 학점 외에도 자신만의 강점을 어떻게 회사의 비즈니스 측면에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보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직무에 맞는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학년 1학기>

제가 생각하는 취업 준비에 앞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도움을 요청하여 정확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BoB 3단계가 끝난 19년 2월 말부터 취업을하기로 마음먹고, 교수님과 지인들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 취업에 필수인 어학 성적 및 자격증 (오픽, 토익, 정보처리기사)을 취득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학부에서 배운 전공 지식에 대한 전반적인 복습 차원으로 졸업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지원하여 최종 면접까지 통과해보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4학년 2학기>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저는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던 BoB 팀원들과 전에 진행하였던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여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정보보안기사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어 9월 하반기 공채 서류를 작성하고, 급하게 삼성 알고리즘 기출문제를 다 풀 후에는 거의 10월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서류 발표가 나오고,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적성을 보는 기업이 많아서 저는 그때부터 인적성 책을 4권 정도 사 놓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부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시간이 없는

데,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일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저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 항상 조언과 가르침을 주셨던 안규황 선배님에게 지체없이 도움을 요청하여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명쾌한 해답을 얻었고, SK 기업을 집중 타겟팅하여 조언받은 방향으로 준비하여 짧은 시간으로 시험에 합격 (알고리즘은 3문제/4문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연뿐만 아니라 바쁘신 와중에 직접 모의 면접까지 봐주셔서 지금 이렇게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듯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